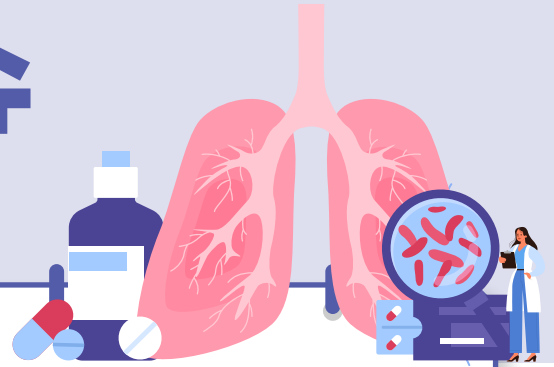


1분기

감염병 이슈

폐결핵, 항생제 내성



감염병 정보 | 폐결핵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에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중요합니다

정의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80%), 림프절·뼈·신장 등 다른 장기에 생길 수 있음

폐결핵 전파경로

- 결핵 환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할 때 발생한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공기 중 전파**
-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되지 않는 환경에서 **전파 위험 증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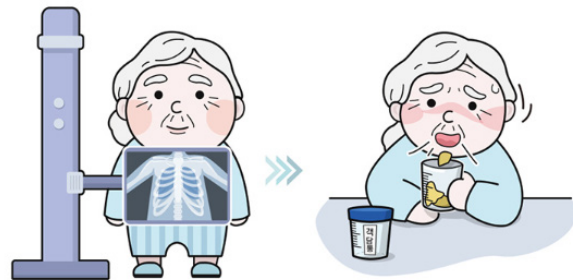
-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만성질환자가 다수 생활
- 장시간 공동생활 및 밀접 접촉

폐결핵 증상

-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특별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피로감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남. 증상이 심할 경우 객혈, 흉통,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남

폐결핵 진단

-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하고, 결핵 의심이 되면 객담(가래)검사를 실시



① 흉부X선 검사

② 객담(가래) 검사

폐결핵 치료

- 항결핵제 복합 요법을 사용함.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 처음 치료 시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
- **중간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내성 결핵균,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중단하지 않고** 복용법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

폐결핵 예방

- **정기 검진** 종사자는 매년 1회 흉부 X-선 검사 필수
- **기침 예절**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실내 환기** 하루 2~3회 주기적인 환기(하단의 환기 수칙 참고)
- 2주 이상 기침, 가래 지속 시 의사 진료 후 검사(65세 이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어르신들은 '기운이 없다'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식사량이나 활동량을 세심히 관찰해 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

환기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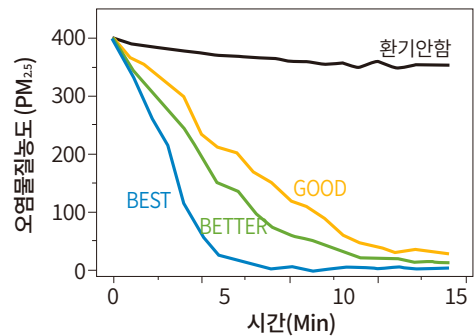
10분 내외 자연환기 시 오염물질 농도 1/3 감소

자연환기 방법

최소 하루 3번,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게 창문과 출입문 동시에 열기, 선풍기 사용 시 환기 효과 증가

기계환기 방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틀 것,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 출처 :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22.12.23.)



결핵ZERO 바로가기 QR코드

결핵ZERO

> 지침

> 관리지침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결핵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알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결핵 대응 매뉴얼] 참고해주세요

① 질병관리청(kdca.go.kr), ② 결핵ZERO(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위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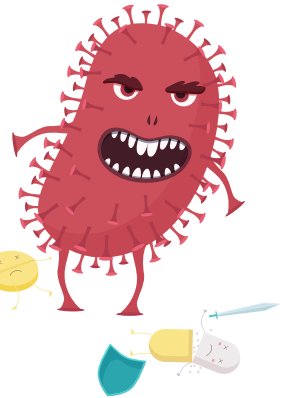
감염병 소식 | 항생제 내성

항생제란?

세균을 파괴하거나 증식을 억제하여 세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하는 방법을 만들어 해당 약물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



항생제 내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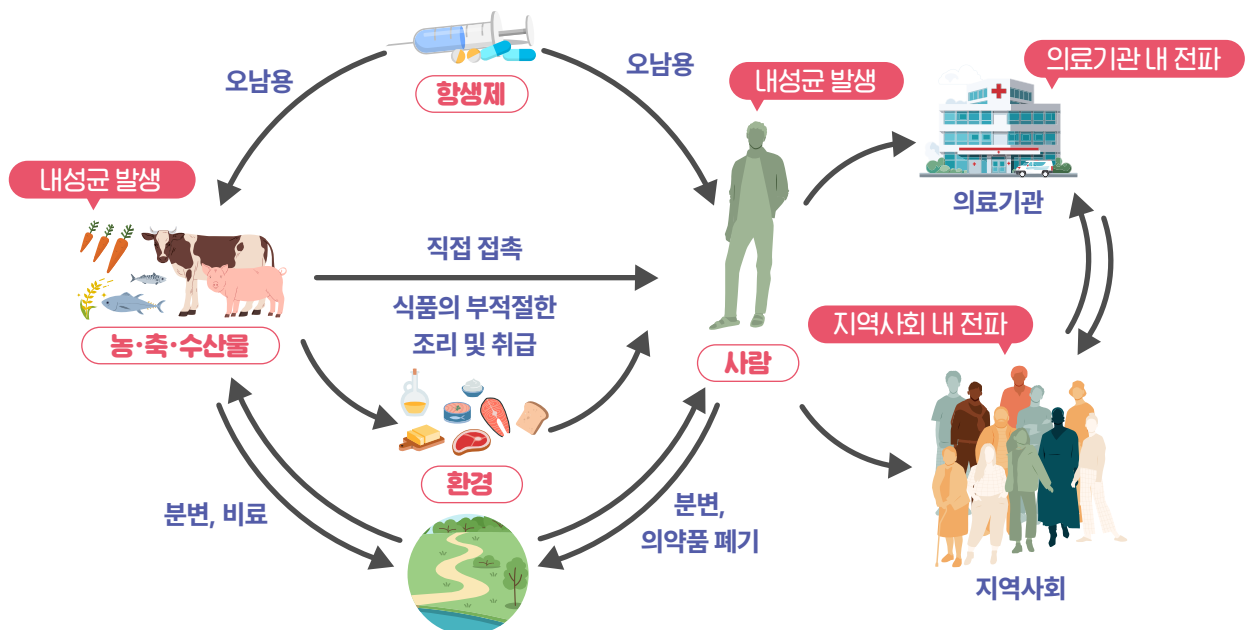
- 항생제 오남용
- 부적절한 감염 예방관리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전파
- 식품, 환경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전파

왜 항생제 내성을 관리해야 할까요?

- 항생제 내성균 감염은 일반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 감염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면역기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함**

전파경로

-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료, 농·축·수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과의 직접 접촉,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 등으로 전파될 수 있음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

-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법 준수
- 남은 항생제나 타인의 항생제 먹지 않기
- 처방받은 기간 끝까지 복용하기
-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여 안전하게 폐기하기(환경전파 예방)
-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이며, 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는 불필요함을 기억하기

세균감염질환

폐렴

편도염

바이러스 감염질환

감기, 콧물

인플루엔자(독감)



SAY YES TO ANTIBIOTICS

세균이 원인, 항생제 필요



SAY NO TO ANTIBIOTICS

바이러스가 원인, 항생제 불필요

감염예방으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 예방하기

-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필요시 마스크 착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예방접종 받기
- 주변 환경 청소 및 소독하기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올바르게 사용하기!**